

“심신의 휴식과 깨달음 준다”

공주 마곡사 10개국 참가 템플스테이 찾는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에서 5월 8-9일 진행된 템플스테이에는 브라질, 멕시코, 인도 대사와 미국,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 인도, 스페인 등 10개국 부대사관 및 참사, 상공회의소, 관광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에는 발우공양, 새벽예불, 타종제향, 스님과의 차담, 탑돌이, 108배, 참선, 포항, 암자순례, 연등만들기, 사찰 인쇄 등 전국 사찰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행사가 열린 1박 2일 동안 수행자에 가까웠다.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자세로 모든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했다.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참가자들에게 적절한 통역에 해석까지 덧붙였다. 그는 원활한 행사를 이끌어가는 촉매였다.

모든 일정을 마친 그에게 소감 대신 깨달은 점을 물었다. “종교를 알면 알수록 결국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교파와 종단이라는 다양



5월 8일 마곡사 템플스테이에서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한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불교의 원리, 가르침은 종교가 지나야 할 참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니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부터 종교에 관심이 많

아 구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과를 졸업한 종교학도 담당. 종교단체 세미나 관계로 방한한 것이 인연이 돼 한국에 귀화한 그에게 한국불교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참 사장은 템플스테이

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훌륭한 상품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명품 관광 상품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유 가치를 가졌으면서도 모든 종교의식, 정신문화를 가졌습니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 대한 극찬도 빼놓지 않았다. 이참 사장은 “한국 불교는 온전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큰’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참 사장은 “배우는 관광, 심신치유의 관광이 요구되는 때에 템플스테이는 종교를 떠나 짧은 시간 많은 깨달음과 심신치유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언 기자

법화중 총무원장 해륜 스님 재임

법화중 제1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해륜 스님이 재 선출돼 두 번째 총무원장 임기에 돌입했다.

법화중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0일 부산 흥국사에서 임시 중앙총회를 소집해 총무원장 선거를 시행했다. 전국의 중앙총회원과 지방교구총무원장 등이 참석한 이번 선거는 개표 결과, 재직의원 13명 중 12명이 출석해 11표의 지지를 받아 제17대 총무원장을 지낸 해륜 스님이 재선출됐다.

이날 해륜 스님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고, 중정 상과 스님으로부터 제18대 총무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해륜 스님은 “대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종단의 중무행정 경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승풍을 일으키기 위한 대안으로 승가대학 등 승가를 위한 교육기관 설립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100자 뉴스

분황사, 원효 성사 제1324주기 제향대제

제1324주기 원효 성사 제향대제가 5월 12일 경주 분황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불국사 주지 성다 스님,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분황사 주지 종우 스님, 이평대 원효화 연구원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원효 성사를 추모하고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다. 제향대제가 끝난 뒤에는 분황사 경내에서 어르신 위안잔치와 만발공양 행사가 이어졌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법륜사, 지역어르신 초청 위안잔치

광주 법륜사주지 월인은 5월 13일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노인잔치를 열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민들에게 작은 점심공양을 대접하고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태고종 원로의원 지암 스님과 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장 호산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안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밀양 용궁사 극락보전 아미타 삼존불 봉안법회

밀양 용궁사주지 정무는 5월 8일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 봉안법회 회식을 봉행했다. 주지 정무 스님은 “용궁사는 사명대사의 구국정신을 이어받아, 지혜와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는 보살정신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심기 위한 지역 포교 중심도량이었다”며 “이제 수행과 교육은 물론, 교화와 기도 도량으로 일신코자 극락보전 삼존불 봉안법회를 발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명법사 해홍 스님은 법문을 통해 “여사의 전통을 되찾아 아미타 도량의 명맥을 잇는 주지스님의 원력과 신도들의 열의가 모여 이룬 값진 결과”라며 축하했다. 박지원 기자

군산 동국사 회주 재훈 스님 교구장 봉행

군산 불교사암연합회장이자 동국사 회주인 재훈 스님이 5월 10일 임직했다. 법랍 54년, 세남 72세.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12일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다비장에서 교구장으로 엄수했다. 1937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재훈 스님은 1957년 선운사에서 남곡 스님에게 출가해 1958년 해원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해방 후 불교정화 활동으로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를 조성했고, 1987년 군산 성불사를 창건하고 교도소와 청소년 포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왕사, 범주 스님 선묵화 전시회

달마도로 유명한 범주 스님의 선묵화 전시회가 5월 8-21일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에서 열린다. 법왕사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달마스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형상화한 그림을 비롯해 산수화, 한산습득도 등 선묵화 70여 점이 선보인다. 전시회 개막식에 맞춰 범주스님이 직접 1미터가 넘는 대붓으로 거대한 달마도를 그리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G20 정상회의 위한 경찰청 봉축



경찰청 법회에 참석한 500여 사부대중이 G20 정상회의 성공개회를 위한 발원문을 낭독하는 모습.

“인정받는 경찰, 사랑받는 경찰, 존경받는 경찰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성공개회를 위한 경찰청 봉축법회가 5월 13일 경찰청에서 봉행됐다.

경찰청 법회는 경찰청불교회(회장 허영법)가 주최하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해홍스님)과 서울 도선사(주지 선묵)가 후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해홍 스님, 서울 도선사 동광 스님이

참석했다. 경찰청 경승 스님인 계성 스님, 현종 스님, 해만 스님, 여행 스님과 강희락 경찰청장, 모강인 경찰청 차장,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임희웅 포교사단장, 하복동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장, 박상필 국제포교사회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한편, 경찰청과 경찰청과 포교활동에 앞장서온 경찰청 불교회원장 정미자, 서현숙 씨에게 각각 총무원장, 포교원장 표창패가 수여됐다. 이상언 기자

충북불교미술인회 불화전시회

충북불교미술인회(회장 이희영)는 5월 7-12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불화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 제4회를 맞는 ‘산사에서 대중 속으로’ 불화전시회는 충북불교미술인회가 주관하고 청주·청원불교연합회가 주최했다.

충북불교미술인회는 충청불자들의 모임. 평소에는 각자의 예술 활동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 전통불화, 서각, 민화, 조각, 서예 등을 하는 불자들이 함께 준비했다.

청주청원불교연합회장 광해 스님은 “문화유산 중 불교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우리생활 곳곳에 이미 불교미술이 깊게 뿌리내려 있다”면서 “그림을 보면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환희심을 내도록 주옥같은 작품을 전시하여 불자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해철 충청지사장



해인사 원당암 달마선원 ‘가야산 정진불’ 출판기념법회 봉행

해인사 원당암 달마선원(선원장 원각)은 5월 5일 해암 스님 임직 9주기를 맞아 해암 큰스님 일대기를 소설화한 <가야산 정진불>(정찬주 지음) 출판기념 법회를 문도회장 성법 스님 등 300여 문도와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스리랑카 사미승, 구례 화엄사서 출가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5월 10일 경내에서 한국-스리랑카 장학재단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스리랑카 불교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화엄사의 총무 일문 스님은 “2004년부터 외국인노동자와 이주

민을 대상으로 활동 중인 장학재단과 인연을 맺어, 이번 사미승 6명을 포함해 8명의 출가지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화엄사 강원에서 한국불교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불교 원용교단 무문총림

지관(止觀)쌍수 원용 결사문

대한민국의 비구 마정, 정림, 해우, 법인, 덕치, 혜조, 영관, 법천, 원명, 지암, 보당, 해석, 대허, 법봉, 도일, 해안, 원돈 등은 지관쌍수 원용결사의 원을 함께하여 제방의 선지식을 공경히 맞이하고 청정대중과 더불어 무문총림에서 불전에 헌향하며 지관쌍수 원용결사의 서원을 세우노라.

총림의 동참대중과 더불어 지관쌍수 원용결사로 범행을 이루어 중생을 제도하며 구경에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증득케 하여 선지가 밝게 드날려 정법이 상속하고 중생계가 다하여 부처님의 자비롭고 윤택한 법계에 목욕함으로써 가없는 지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분별을 헤치고 진여 본성에 계합하고 무상의 지혜를 증득하여 별도로 수승한 패찰이 없이도 다 같이 불토에 이르게 하여 지이다.

실로 무명 업생인 유정 함식중생들의 속세 이속습기는 지혜의 장애가 되므로 업연은 전도되고 산란하여 고통의 바다인 육도윤회에 계박 되므로 윤회의 업연을 벗어나기 어려우나 다행히 제방의 눈 밝은 선지식을 초청하고 수승한 법회상에 인도되어 바른 인연에 혼승함으로써 밝은 지혜의 방편 얻기를 기원하노라.

오직 지혜의 힘은 미약하고 청정한 혼승은 없으며 세력은 적고 지혜가 용렬할지나 말은바 소임을 감당함으로써 불은에 보답하고 가없는 법계에 회향되기를 바라노라.

<지관쌍수의 지표>

1. 제불여래와 역대조사의 규범을 의지하며 널리 불법을 선양하고 오묘한 뜻을 기운삼야 정진함을 교육의 중지로 한다.
2. 초기불교와 대승 경전에 의한 교법의 의취에 의지하여 옹당히 선교방편으로 진실한 참구와 실천에 의한 중생을 교학의 방침으로 한다.
3. 제불 조사의 깊고 오묘한 비밀장에 의지하여 종파와 종단을 초월하여 미약함을 보충하고 넓침은 갈라서 바르게 인도하되 잇는 것을 찾아 증득 하는 것을 시교의 목표로 한다.
4. 초기불교와 대승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요결을 발췌하여 학인이 수요하고 실천함에 복습할 수 있도록 보충하고 편제하여 수교과정은 엄격하고 체계화 하여 명백히 인도함에 있어 그 전적으로 삼는다.
5. 교학의 편제는 실제로 필요한 것에 의지하고 간결함에 핵심 요결을 삼아 교육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원만하고도 자세히 하는 교학을 실시한다.
6. 교학의 핵심내용을 보충하고 그 내용을 관통하여 온전히 통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완함에 역점을 두어 그 학습능력이 수행과 대중포교에 원만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경, 율, 론 삼장을 의지 하되 역대조사와 선지식들이 가르치고 경계하신 호리의 문장과 제 규범을 널리 포섭하고 함께 의지하여 출가자와 대중이 인연의 사표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
8. 총림의 조직과 운영은 고래의 전통을 계승하되 학계의 편제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적극 활용한다.

<叢林論示>

持戒清淨 止觀雙修 和合大眾

無門叢林	永平寺
證明圓明	芝菴
開山法主	摩定
副法主	正林

한국불교 원용교단 무문총림

본산중앙협의회 의장 석해우 부의장 석법인

조계선림 본산 법주 마정	조동선림 본산 법주 정림	대승선림 본산 법주 법인	삼론강림 본산 법주 덕치
임제선림 본산 법주 혜조	정토선림 본산 법주 법천	조계2선림 본산 법주 보당	화엄선림 본산 법주 영관
운영이사: 지암 해석 대허 원돈 법봉	사무총장 석원돈		

金悟禪院 院院長 釋道一

華山學林 講主 釋摩定

靈山律院 律主 釋慧眼

중양불교대학원

재가불자 교육원장 이홍표

曹洞禪林 (社)大韓佛敎 須彌山門 曹洞正宗

조동선림 본산 영평사

曹溪禪林 大韓佛敎 曹溪宗

조계1선림 본산 관음사

三論講林 大韓佛敎 三論宗

삼론강림 본산 구룡사

臨濟禪林 韓國佛敎 濟寧禪學院

임제선림 본산 천년고찰 수암사

大乘禪林 (社)大乘佛敎 六祖曹溪宗

대승선림 본산 법타사

華嚴禪林 海東佛敎 華嚴宗

화엄선림 본산 회룡사

淨土禪林 大韓淨土佛敎 曹溪宗

정토선림 본산 쌍용사

曹溪禪林 韓國佛敎 曹溪宗

<동참할 종단과 사암을 모십니다>

- 총림: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 전화 031)676-0908, 676-3960 / FAX 031)676-2960
- 종단본산협의회: 서울 중랑구 망우 3동120-7 전화 02)496-3952-3 / FAX 02)496-3951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